

강기정 시장, 세계양궁연맹 총회서 광주 홍보

28일 독일 총회 참석...2025 광주대회 인프라·배출 스타 등 소개

강기정 광주시장이 2년 앞으로 다가온 '2025 광주 세계양궁선수권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국제 무대에 본격 나선다.

강 시장은 오는 28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세계양궁연맹(WA) 총회'에 참석해 세계 양궁 지도자들에게 차기 대회 개최도시인 광주시의 탄탄한 양궁 인프라와 광주가 배출한 세계적 스타들을 소개한다. 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와 포용 도시 광주를 널리 알리는 등 도시외교를 강화한다. 세계양궁연맹(WA)의 공식 초청을 받은 강 시

장은 세계양궁연맹 총회, 베를린대회 조직위원회 면담 등에 잇따라 참석해 '2002 한일월드컵',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등 대규모 국제대회를 성공 개최한 경험과 노후우 등 국제스포츠 역량을 갖춘 도시임을 강조하는 등 광주대회 성공을 위한 홍보활동에 나선다.

강 시장은 특히 광주가 서향순, 장유호, 주현정, 기보배, 최미선, 안산 선수 등 광주 출신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를 비롯한 세계적 실력을 갖춘 공사

를 배출한 양궁의 메카라는 점과 국제규격의 최신 경기장인 광주국제양궁장 등 훌륭한 기반시설(인프라) 등을 갖추고 있다는 점 등을 전 세계에 적극 알릴 계획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150만 광주시민의 높은 관심과 열정을 통해 2025년 광주에서 세계양궁선수권대회를 개최하고 국제스포츠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며 "광주 세계양궁선수권대회를 통해 지구촌에 화합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고 전 세계인의 축제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계양궁연맹은 2021년 12월 '2025 세계양궁

선수권대회' 개최지로 광주시를 확정했다. 우리나라에서 세계양궁선수권대회가 열리는 것은 1985년 제33회 서울, 2009년 제45회 울산에 이어 3번째다.

'2025 광주 세계양궁선수권대회'는 2025년 9월 5일부터 12일까지 8일간 광주국제양궁장 일원에서 전세계 100여개국 1100여명의 선수가 참여해 선의의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독일 베를린에서는 오는 31일부터 8월 6일까지 7일간 '세계양궁연맹 총회'와 함께 '2023 베를린 세계양궁선수권대회'가 열린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청렴 실천 서약' 김영록 전남지사를 비롯해 실무장들이 25일 오전 도청 사재필실에서 열린 청렴윤리경영 회의에서 공직자로서 관행적 부패를 척결하고 공정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실천할 것을 다짐하는 청렴실천 서약하고 있다. <전남도제공>

김영록 지사 "기후재난, 과학적 관리 필요" 광주시, 5대 신활력벨트 조성 '속도'

전남도 실국장 회의... 현장 중심·디지털 시스템 마련 등 강조

김영록 전남지사가 25일 "기후변화시대 '극한 호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재해 양상이 다양화, 대형화됨에 따라 사고의 대전환을 통해 과학적 관리체계 도입 등 근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사재필실에서 실국장 정책회의를 열어 "경북과 충북 등 전국에서 47명의 사망자가 나온 것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 피해 지역 복구 지원이나 위문활동에 적극 나서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집중호우에 따른 인명피해 사례에서 수리시설 자동계측시스템이나 지하차도 자동차단 시설 등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며 "디지털 재난관리시스템 도입 등 과학적 관리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지원 지방하천 지정 등 수해 방지를 위한 하천법 개정이 국회에서 조속히 이뤄지도록 노력하라"며 "이밖에도 해상풍력특별법, 남해안권발전특별법 등 도정 현안과 관련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주도적

으로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함께 "비가 그치고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고 있으므로 온열환자 관리에 철저히 나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이밖에도 ▲정부의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프로젝트에 적극 대응하고 ▲동네 상권에서 소비가 이뤄지는 '로코노미' 시대 성과를 보인 진도대파버거 사례를 완도전북, 진도축마, 고흥유자 등 다른 특산자원으로 확산하고 ▲조직계면으로 신설된 균형성과담담관, 관광개발과, 문화산업과, 대학혁신추진단 등이 도정의 중요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부서로서 도민에게 희망을 줄 전략과 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주민대피 긴급 구호물품'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및 신속한 주민 지원도 당부했다. 전남도는 긴급 주민대피를 실시한 산사태 위험지구 1252세트를 선제적으로 배부했으며, 유사시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긴급 지원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영산강·황룡강 Y벨트, 타당성 용역 다음달 마무리

광주시가 재마·힐링·교통·창업·디지털콘텐츠 등 시민의 삶을 짊어주는 '5대 신활력벨트' 조성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민선 8기 핵심사업인 '5대 신활력벨트'는 영산강·황룡강 익사이팅벨트, 광주전 생태 힐링벨트, 광주송정역 활력벨트, 광주역 창업벨트, 효천역 디지털콘텐츠벨트다.

'영산강·황룡강 익사이팅벨트(Y벨트)'는 기본구상 등 타당성 조사용역이 다음 달이면 완료될 예정이며, 시민·전문가·관련기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보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광주전 생태힐링벨트'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양림동, 옛 전방-일신방직 등 광주전 주변의 다양한 문화·관광공간을 광주전 중심으로 연결하고 시민과 관광객이 자전거, 도보로 문화·쇼핑·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광주송정역 활력벨트'는 광주송정역 앞 광장 조성, 투자선도지구 개발, 미디어아트 조성, 장륙교 재가설 등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지난 5월 광주

송정역 주차빌딩 신축사업이 완료돼 운영에 들어간 데 이어 광주송정역사 증축사업도 실시설계를 마치고 올해 안에 착공할 계획이다.

'광주역 창업벨트'는 호남권 최대 규모의 창업단지 조성하는 사업으로, 광주역 일원에 빛고을창업스테이션(창업보육), 복합 허브센터(R&D 지원), 기업혁신성장센터(성장지원),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과 일자리연계형 공공주택 등이 들어선다.

빛고을창업스테이션은 내년 상반기 준공 예정이며, 기업혁신성장센터 등은 부지 매입과 동시에 시행계획인가 신청을 위한 설계 공모 등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또 시설별 연계와 통합 운영방안 마련을 위해 광주역 창업밸리 운영계획도 수립 중이다.

'효천역 디지털콘텐츠벨트'는 광주CGI센터와 광주실감콘텐츠큐브(GCC) 기반 문화콘텐츠산업 거점으로 육성된다. 광주시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남구 송하동 송암산업단지를 문화·디지털 기반 모빌리티 허브로 조성하는 도시재생혁신지구(4만3402㎡) 공모사업도 신청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순천·강진·진도·신안 전남 균형발전 300 선정

핵심사업에 1425억 투입

전남도가 전남의 미래성장을 견인할 시·군 핵심 동력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2023년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공모에 4개 사업을 선정했다. 선정 사업은 순천시의 '스마트 생물전환 산업화 플랫폼 111 프로젝트', 강진군의 '천년문화 강진, 청년 글로벌 플랫폼사업', 진도군의 '진경-진도산해도경 프로젝트', 신안군의 '인물, 역사, 문화의 하의권(신의-장산) 라-씨 프로젝트'다.

지난 2023년부터 3~4년간 1425억원을 투입해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재정 여건과 사업 내용 보완 등으로 진도군과 신안군 사업은 2024년 착수한다.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사업은 중앙공모에만 의존했던 지역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시·군이 주도하고 도에서 지원하는 대규모 발전 프로젝트다.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 삶의 만족도를 높이며, 자립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사업 선정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사업계획서와 현장평가 등을 통해 이뤄졌다. 시·군 수요와 지방소멸위기 대응 등 사업의 시급성과 사업 준비 등을 감안해 올해 2년분 4개소를 선정했다.

순천시는 승주읍을 거점으로 새싹삼을 활용한 생물전환 소재 생산에서 유통까지의 원스톱 추진 체계를, 강진군은 10년 넘게 방치된 폐교(성화대학) 부지를 활용한 4차 산업혁명(실감기술) 융합 플랫폼을 각각 구축한다. 진도군은 화동관광지(신비의 바닷길 등)의 노후 관광시설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하는 것을, 신안군은 신안남부권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을 각각 목표로 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 올 상반기 전년보다 2배 증가

전남도가 농업인의 대출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역점 추진하는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 사업이 농가 경영 안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지원 대상도 지난해보다 2배 이상 크게 늘었다.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사업은 농업종합자금과 농어촌구조개선자금, 산림종합자금 대출을 바라는 농업인에게 대출이자 3% 중 2% 범위에서 개인은 연간 최대 200만원, 법인은 400만원을 전남도와 시·군이 보전하는 사업이다.

올해 상반기 지원 대상은 총 2만411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2013건)의 2배에 달했다. 사업비 역시 35억원으로 지난해(15억원)보다 1.3배 이상 증가했다. 이처럼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 대상이 늘어난 것은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농업융자특별회계 시행한 단기자금 금리 인하 정책이 지난해 12월 말 종료됨에 따라 이자율이 상승했기 때문이라 분석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대한사협회 심의필 제230620-중-154988호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개원21년의 **첨단우리병원**에서 **건강과 행복을** 챙기세요!

대상포진 **폐렴백신** **영양수액**

백신 냉장고 도입

첨단우리병원 전화문의 **062)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

건물·주택 리모델링, 신축, 지붕공사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전원 리모델링 **칼라강판 지붕공사**

주택 (외, 내부)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농막** **옥상스틸방수**

모던건설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

사무실 광주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광주시 서구 서항2길3(서항동)